

한·미 FTA 제7차 협상 결과

수입쿼터(TRQ)량 조정이 관건

지난 2.11일부터 2.14일까지 4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FTA 제7차 협상이 개최되었다. 우리의 관심을 모으는 농업분과 협상은 2.12부터 14일까지 3일간 진행되었는데, 이번 협상에서 농업 분과는 상호 기대하고 있는 양허수준의 차이를 적극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했으나, 민감성이 낮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양허방안을 논의하였으나 기대수준의 차이가 여전히 큼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미국은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자국 관심품목의 경우 의미 있는 시장접근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농산물 세이프가드 및 수입쿼터(TRQ)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나 세부 사항에 있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우리 천연꿀과 관련하여 정부측 입장은 수입쿼터(TRQ) 초기 물량을 70톤으로 제한하면서 쿼터밖 세율은 현행 243%를 유지하려는 입장이나, 미국측은 초기 물량을 더 확대하고 세율 즉시 철폐를 요구하고 있어 쿼터 물량 조정이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앞으로 협상 속도 가속화에 대비하여 7차 협상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민감품목에 대한 합의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농산물 세이프가드 및 수입쿼터(TRQ)에 대해서는 양측 입장을 절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한미FTA 농업고위급회담 규탄대회



▶ 3천여명의 시위 참석자들

지난 3월 5일부터 시작된 한미FTA 농업고위급 회담을 맞아 본 협회를 비롯한 축산단체 회원 3천여명은 당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강한 눈바람이 몰아치는 날씨 가운데서도 이날 모인 농·축산인들의 뜨거운 열정과 함성은 식을 줄 몰랐다.

이번 농업고위급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은 주고받기식 협상으로 회담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여, 이번 회담 결과에 생사가 달린 우리 농·축산인들은 비합리적인 정부의 태도에 더욱 절실하게 함성을 외치지 않을 수 없었다.

본 협회 직원들 역시 정부의 일관성 없는 태도에 대해 질타하는 구호에 맞춰 목청껏 함성을 높이기도 했다. 한편 전기현 회장은 타축산단체장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하여 농·축산인들을 대표한 항의서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 이인기 국회의원과 인사를 나누는 전기현 회장



▶ 여의도에서 개최된 축산관련단체 궐기대회에 참석한 전기현 회장



▶ (좌측부터) 권오을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장,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



▶ 본 협회 플랜카드



▶ 지난 3월10일 한미FTA반대 시위 중 경찰들을 따돌리기 위해 서울역 → 신촌로타리 → 독립문 → 광화문으로 이동하면서 시위를 계속함